

'복병' 요르단 잡고 16강 조기 확정하자



15일(현지시간) 카타르 도하 자심 빈 하미드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3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안컵 조별리그 E조 한국과 바레인의 경기. 대표팀 주장 손흥민(오른쪽)과 이강인이 프리킥을 차기 전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클린스만호, 20일 아시안컵 2차전 '요르단 손흥민' 알타마리 '경계'

클린스만호가 '복병' 요르단을 상대로 아시안컵 16강행 조기 확정을 노린다.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이 지휘하는 한국 축구 대표팀은 20일 오후 8시 30분 카타르 도하의 알사우마 스타디움에서 요르단을 상대로 2023 아시아축구연맹(AFC) 카타르 아시안컵 조별리그 E조 2차전을 치른다. 클린스만호는 다행히 바레인과 1차전을 3-1 승리로 장식하며 순조롭게 첫발을 뗐다. 요르단을 상대로도 승점 3을 따낸다면 한국은 조 2위까지 주는 16강 진출 티켓을 조기에 확보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조 1위로 16강이 오르게 될 가능성도 커진다. 2차전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는다면, 말레이시아와 조별리그 최종전에서는 핵심 자원에 휴식을 부여하고 토너먼트를 일찍부터 대비할 수 있게 된다. 요르단은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87위로 한국(23위)보다 64계단 낮다. 바레인(86위)보다도 순위가 아래다. 한국은 요르단과 역대 전적에서 3승 2무 무패로 앞선다. 그러나 요르단의 최근 경기 내용을 보면 절대 쉽게 봐서는 안 될 상대로 보인다. 왼쪽 윙백 마흐무드 알마르디, 오른쪽 공격수 무사 알타마리를 앞세운 빠른 측면 공격이 위협적이다. 알마르디는 발이 빠른 데다 안쪽으로 들어오며 동료에게 슈팅 기회를 창출하는 능력이 좋다. 슈팅력이 좋아 스스로 해결할 줄도 안다. 대회 첫 경기였던 타지키스탄전에서 페널티지역 왼쪽에서 오른발 감아차기 슈팅으로 만든 '원더골'을 포함해 멀티골을 작성하며 요르단의 4-0 완승에 앞장섰다. /연합뉴스

역시 타지키스탄전에서 페널티킥 득점을 포함해 2골을 책임진 알타마리는 요르단 선수 중 유일하게 유럽 빅리그에서 뛰는 선수다. 팀 내 위상을 놓고 보면 '요르단 손흥민(토티넘)'이라 할 만하다. 알타마리는 지난해 여름 프랑스 몽펠리에에 입단해 15경기 3골의 준수한 활약을 펼치고 있다. 아직 26세에 불과하지만, 일찍 대표팀에 안착해 A매치 63경기 15골을 기록 중이다. 베테랑 스트라이커 합자 알다르두르(35골)에 이어 팀 내 득점 2위다. 설영우, 김태환(이상 울산), 이기제(수원) 등 클린스만호 측면 수비수들이 요르단의 예봉을 잘 막아줘야 수월하게 승리할 수 있을 거로 보인다. 공격진도 더 정비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바레인을 상대로 2골차 승리를 거뒀으나, 이강인(파리 생제르맹)이 넣은 결승골과 왜기골은 공격진 전체가 만들어낸 결과라기보다는 개인의 지분이 커 보였다. 최전방 공격진의 부진도 눈에 띄었다. 클린스만 감독은 바레인전에서 조규성(미트윌란)과 투톱으로 활용한 손흥민을, 이번에는 원톱에 세우는 등의 선택지를 두고 고민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클린스만호가 요르단전에서 일찌감치 승기를 굳힌다면, '엘로카드 세탁'도 고려해볼 만하다. 한국은 1차전에서 손흥민, 김민재(원전) 등 5명의 선수가 무더기로 경고를 받았다. 아시안컵에서는 엘로카드 2장이 누적되면 다음 경기에 나오지 못한다. 외려 이 규정을 거꾸로 활용해 2차전에서 두 번째 경고를 받는다면 16강 토너먼트를 '경고 제로' 상태로 시작할 수 있다. 엘로카드는 8강전까지는 누적되며 4강부터 없어진다. /연합뉴스

광주FC, U-23 대표 출신 수비수 변준수 영입

큰 키에 몸싸움 능하고 판단력도 빨라...아론은 대전형

광주FC가 대전하나시나이와 '중앙수비수'를 맞바꿨다. 광주는 18일 트레이드를 통해 중앙 수비수 아론(28·Aaron Robert Calver)을 보내고 U-23 대표팀 출신의 중앙 수비수 변준수(22·사진)를 영입했다. 변준수는 190cm, 88kg의 뛰어난 신체조건을 갖췄으며 몸싸움에 능하다. 빠른 판단력을 바탕으로 수비 리더십 능력이 좋고, 넓은 시야와 정확한 패스로 빌드업에서도 강점을 보인다. 광주는 변준수가 센스있게 공격 전개를 이끌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 경희고 시절인 2018년 주말리그 후반기 MVP에 선정된 그는 2018년과 2019년 백록기 전국고교축구대회에서 각각 팀의 우승과 준우승을 이끌며, 2년 연속 수비수 주인공이 됐다. 2020년 대전에 입단한 변준수는 2021시즌 프로 데뷔전을 치렀고, 2022년에는 K리그2 19경기에 나와 1도움을 올렸다. 또 대전B팀으로 K4리그 13경기에서 2도움도 기록했다. 지난 시즌에는 K리그1 무대에서 15경기를 소화하며 프로 데뷔골도 기록했다. K4리그 7경기도 소화했다. 변준수는 대표팀에서의 경험도 갖추고 있다.



2019년 U-19 대표팀에 소집됐던 그는 2023년 U-23 카타르 도하컵에서는 '주장 완장'을 썼다. 변준수는 2024년 파리 올림픽 아시아 최종예선 및 AFC U-23 아시안컵 대비 훈련에 소집돼 튀르키예에서 전지훈련을 소화하고 있다. 변준수는 "첫 이적이라 매우 떨린다. 광주가 상대팀 입장에서는 굉장히 알미우면서 배울 것이 많은 팀이라고 생각했다. 많은 배움으로 성장하고 싶다"며 "경기장에서 항상 파이팅 있게 플레이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아시안컵 '디펜딩 챔프' 카타르, 16강 진출

타지키스탄 1-0 물리치고 2연승

2023 아시아축구연맹(AFC) 카타르 아시안컵 개최국이자 디펜딩 챔피언인 카타르가 가장 먼저 16강 진출을 확정했다. 카타르는 17일(현지시간) 카타르 알코르의 알바이트 스타디움에서 열린 대회 조별리그 A조 2차전에서 퇴장으로 막판에 10명이 싸운 타지키스탄을 1-0으로 물리쳤다. 레바논과 1차전 3-0 승리에 이어 2연승을 달린 카타르는 24개 출전국 중 가장 먼저 16강행을 확정했다. 승점 6을 쌓은 카타르는 2위 중국(승점 2·2무), 3위 타지키스탄(승점 1·1무 1패·골득실 -1), 4위 레바논(승점 1·1무 1패·골득실 -3)이 최종전에서 어떤 결과를 내도 선두 자리를 유지한다.

아랍에미리트(UAE)에서 열린 2019년 대회에서 우승한 카타르는 대회 2연패이자 통산 2회 우승에 도전한다. 카타르는 지난 17분 알무이트 알리가 하프라인에서 길게 찰려준 침투패스를 받은 아크람 아피프가 오른발 슈팅으로 선제 결승골을 뽑아내 승부를 갈랐다. 타지키스탄은 후반 34분 아마도니 카롤로프가 레드카드를 받아 수석 열세에 놓였다. 카롤로프는 경합을 하다 카타르 선수와 엉켜 넘어졌는데, 이때 발을 들어 아흐메드 알가네히의 턱을 걷어쳤다. 일본인 기무라 히로유키 주심은 카롤로프에게 처음엔 엘로카드를 내밀었으나, 온 필드 리부팅을 하더니 퇴장으로 판정을 정정했다. 이 판정으로 카타르는 승기를 굳혔고, 큰 실점 위기 없이 승부를 마무리했다. /연합뉴스



빅리거 이정후 '꿈의 도전' 시작된다

2월 15일 스프링캠프 합류...샌프란시스코, 이정후 유니폼 등 출시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에 진출한 이정후(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사진)의 첫 공식 훈련 일정이 나왔다. MLB닷컴이 17일(이하 현지시간) 공개한 각 구단 스프링캠프 소집 일정에 따르면, 샌프란시스코는 2월 15일 미국 애리조나주 스코츠데일 스타디움에서 투수·포수조 첫 훈련을 시작하고 2월 20일 야수 조가 포함된 전체 팀 훈련을 개시한다. 관계자에 따르면, 이정후는 이달 31일에서 2월 2일 사이 미국으로 출국한 뒤 개인 훈련을 하다가

2월 15일 스프링캠프에 합류할 계획이다. 야수조 공식 훈련은 2월 20일에 시작하지만, 합류 시점은 선수가 정할 수 있다. 이정후는 구단 훈련 시설을 이용하면서 현지 분위기를 익히며 팀 스프링캠프를 준비할 생각이다. 이정후는 스프링캠프 기간 많은 일정을 소화한다. 21일엔 '포토포이'가 열린다. 이정후 등 선수들은 구단이 마케팅에 활용할 다양한 사진을 촬영한다.

이정후에게 큰 기대를 걸고 있는 샌프란시스코 구단은 이미 마케팅 활동을 시작했다. 구단은 17일 소셜미디어 계정을 통해 이정후의 공식 유니폼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이번만이 아니다. 샌프란시스코 구단은 7월 28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오라클파크에서 열리는 콜로라도 로키스와 정규시즌 홈 경기에서 이정후의 보블헤드 인형 2만개를 관중들에게 선착순으로 선물하기로 했다. MLB 구단들은 마케팅 전략의 일환으로 몇몇 경기에 특정 선수 보블헤드 인형을 나눠주는 이벤트를 펼친다.

주로 간판급 선수가 주인공이 되는데, 데뷔도 하지 않은 신인 선수가 보블헤드 인형 이벤트 데이 주인공이 되는 경우는 드물다. 기량이 검증되지 않은 탓에 부진한 성적을 내거나 마이너리그로 떨어지면 마케팅 효과는 커녕 팬심에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MLB에 진출했던 한국 선수들 대다수도 미국 무대에 자리를 잡은 뒤 보블헤드 이벤트의 주인공이 됐다. 샌프란시스코 구단이 이정후에게 얼마나 큰 기대를 걸고 있는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샌프란시스코는 지난 달 이정후에게 계약기간 6

년, 총액 1억1300만 달러의 어마어마한 금액을 안긴 뒤 일찌감치 새 시즌 주전 외야수로 짐작했다. 이정후는 포토포이를 마친 뒤 곧바로 시범경기에 나선다. 샌프란시스코는 2월 24일 시카고 컵스와 미국 애리조나주 스코츠데일 스타디움에서 시범경기 개막전 홈 경기를 치른다. 김하성과 고우석의 소속 팀인 샌디에이고 파드리스는 2월 11일 미국 애리조나주 피오리아 스포츠 콤플렉스에서 투수조 훈련을 시작하고, 2월 16일 전체 팀 훈련에 나선다. 공식적으로 고우석은 11일, 김하성은 16일에 새 시즌 훈련을 시작한다. 김하성은 이달 20일 미국으로 출국해 로스앤젤레스에서 개인 훈련을 한 뒤 애리조나로 넘어갈 계획이다. 샌디에이고는 2월 22일 로스앤젤레스 다저스와 시범경기 개막전을 치른다. 배지환의 소속 팀인 피츠버그 파이리츠는 미국 플로리다주 브레이크턴에서 2월 14일 투수조, 2월 19일 전체 훈련을 시작한다. 자유계약선수(FA) 류현진과 최지민은 아직 소속 팀을 찾지 못했다. /연합뉴스